

Daily Auto Check

2023. 4. 5 (Wed)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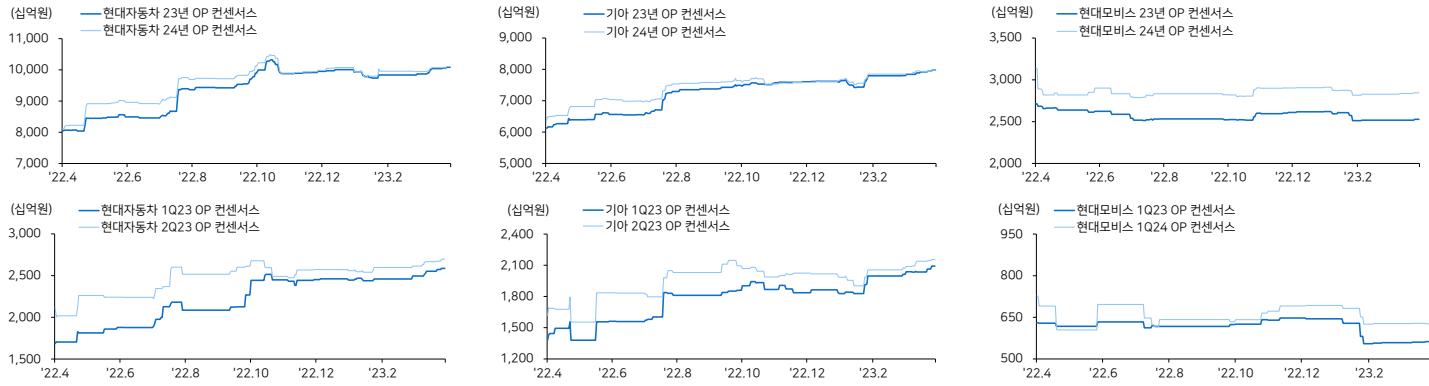
RA 장재혁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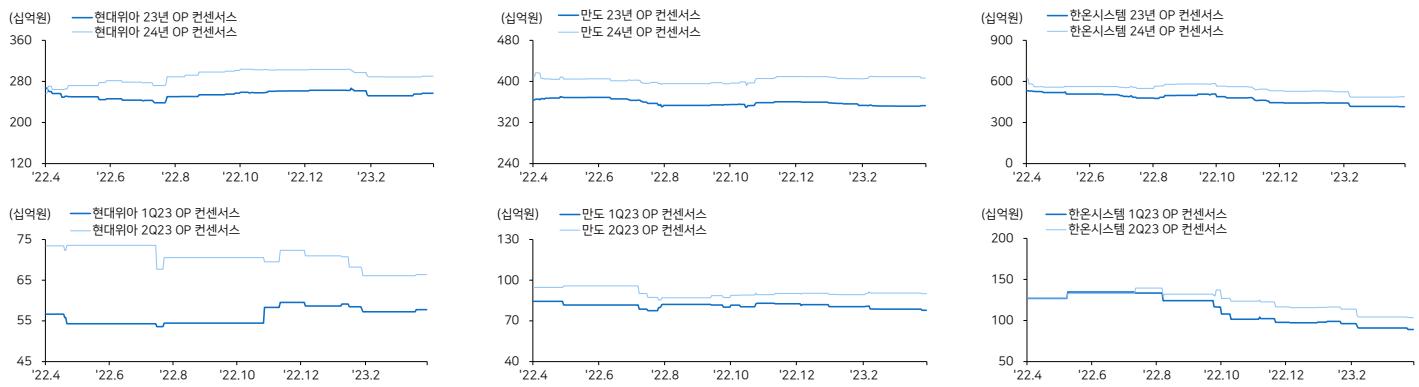
jaehyeok.jang@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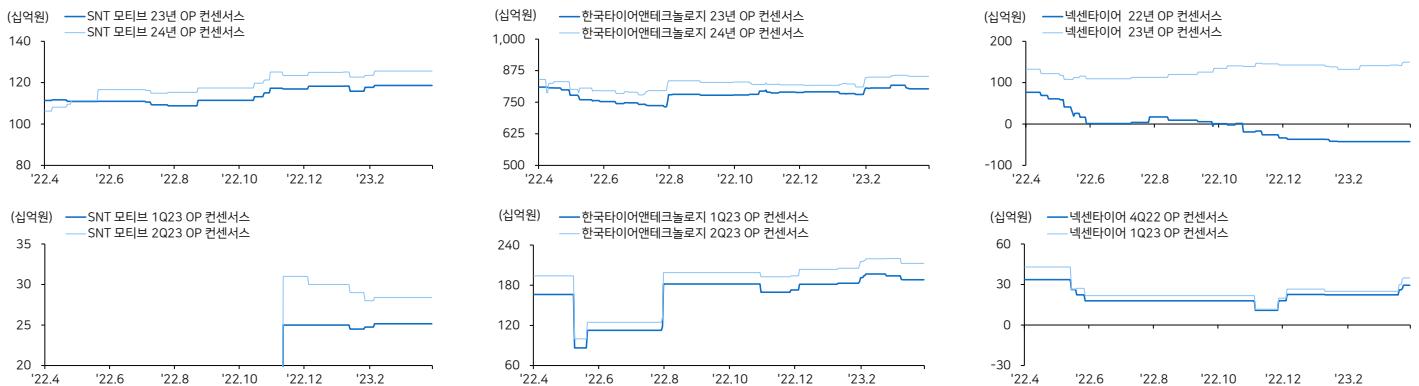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1~2월 PHEV 포함 전기차 전세계 인도량 151만대 (연합뉴스)

올해 1~2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포함한 전기차의 전 세계 인도량이 151만4천대로 전년 대비 25.6% 증가. 중국 비아디(BYD)가 35만2천대로 yoy +93.7%, 테슬라는 22만 1천대로 +55% 성장.

<https://bit.ly/3zxIPNq>

중국 배터리 BYD와 협업, 연간 10만대 전기차 생산 (조선일보)

GM모빌리티는 4월 상용차에서 이름을 바꾼 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고 "중국 배터리 회사인 BYD와 협업과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을 통해 연간 10만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언급.

<https://bit.ly/3U8m3VO>

Tesla prepares to make 4 million units of its cheap electric car, supply chain sources say (electrek)

중국 공급사에 의하면, 테슬라는 \$25K 차세대 전기차를 400만대 이상 생산할 준비 중. 해당 모델은 소형 모델 Y에 가까우며, 멕시코 공장을 비롯해 전세계 공장의 생산능력을 분배하여 생산할 계획.

<https://bit.ly/413ob2b>

Stellantis, BMW in talks with Panasonic over new EV battery plants (Reuters)

스텔란티스와 BMW는 파나소닉과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논의 중. 스텔란티스는 이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와 두 개의 배터리 공장을 발표, 세 번째 파트너로 파나소닉과 논의 중인 것.

<https://reut.rs/3Gdw7HC>

중국, 10년간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 절반 이상 보유 (이데일리)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특허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진단.

<https://bit.ly/413bhm>

출고 대량 이전 엣탈? 현대차·기아 출고기간 보니 (뉴시스)

현대차그룹의 인기 신차 출고대기 기간이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0년 말부터 지속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갈수록 개선돼 차량 생산이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 국내공장 가동률을 100% 이상으로 올리며 수요에 대응 중.

<https://bit.ly/43apXIA>

Elon Musk hypes up Tesla Cybertruck production (electrek)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기가 테사스의 사이버트럭 생산라인을 걸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 올여름 사이버트럭 생산이 시작되며, 사전예약 대수는 150만대에 달하지만 실제 생산량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https://bit.ly/3nL1pPE>

Ford's quarterly US auto sales jump 10.1% on pent-up demand, easing supply (Reuters)

포드는 공급망 차질 완화와 펜트업 수요에 힘입어 1분기 판매량이 yoy 10% 증가했다고 밝힘.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판매는 전년 동기 254대에서 4,291대로 증가, 전체 EV 판매는 41% 증가.

<https://reut.rs/3nKvMWV>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